

월간 실적보고

2018.02

평창 동계올림픽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며 여행수요 감소
하지만 메가 이벤트 후에는 항상 이연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3월부터 수요 회복 예상

Summary of 2018 Feb

1. 해외여행상품 (패키지+티켓+단품) **-10.1%** 성장

- 해외 총 송객인원과 단품 (입장권, Pass 등)을 합산한 수치

2. 해외 총 송객인원 (패키지+티켓) **-6.2% YoY** 증가

- 패키지 **-8.0%** / 티켓 **-3.6% YOY** 증가

(13.5만명 / 9.8만명)

▶ 전 지역 **ASP** 상승

3. 지역별 송객인원 증감 (YoY)

- 일본 **+4.4%**

- 동남아 **-0.7%** 남태 **-2.3%** 유럽 **-22.6%** 미주 **-24.1%** 중국 **-36.0%**

2월 Review : 해외여행상품 (패키지+티켓+단품) 성장률 -10.1%

해외 총 송객인원 (패키지+티켓) 성장 -6.2%, 송객인원 23.3만명

패키지 인원 성장률 **-8.0%, 13.5만명**.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국민적 관심도가 가장 높았던 메가스포츠 이벤트로 추정되는 평창동계올림픽에 국민적 관심 및 여가수요가 몰리며 해외여행수요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둔화. 특히, 인센티브 여행수요(사적모임, 법인 및 정부기관 등)가 크게 영향을 받음. 또한, 전년 2월의 고성장을(22.3% YoY)로 인한 높은 기저(High Base)의 영향도 같이 있음.

티켓 인원 성장률 **-3.6%, 9.8만명**. 최근 4년 동안 가장 낮은 성장률.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인해 해외여행을 통한 여가활동이 줄어 패키지과 FIT 수요 동시에 감소

2월 실적

(단위 : 명, %)

	패키지	티켓	총 송객인원
2018	135,413	98,254	233,667
2017	147,224	101,876	249,100
YOY	-8.0	-3.6	-6.2

패키지 YoY : 2017년 12월 20.0% → 2018년 1월 20.0% → **2018년 2월 -8.0%**

티켓 YoY : 2017년 12월 28.4% → 2018년 1월 22.2% → **2018년 2월 -3.6%**

총송객 YoY : 2017년 12월 23.6% → 2018년 1월 20.9% → **2018년 2월 -6.2%**

지역별 성장 (YoY)

일본 +4.4% 동남아 -0.7% 남태 -2.3% 유럽 -22.6% 미주 -24.1% 중국 -36.0%

평창 동계올림픽 종료 직후부터 일본, 동남아, 남태평양 등 근거리 지역 위주로 여행수요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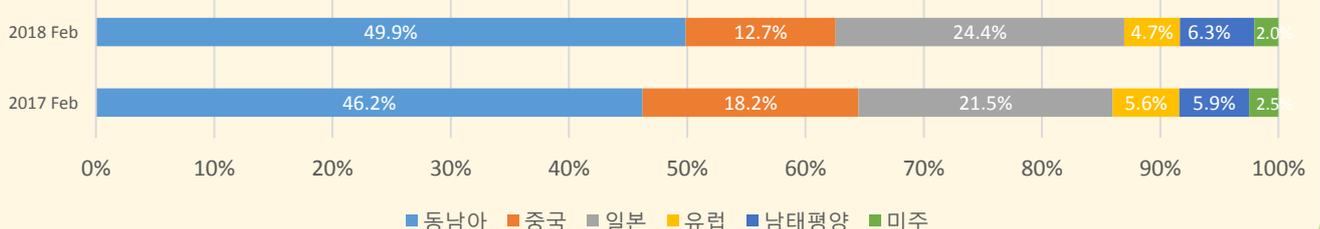
일본 +4.4%, 젊은 층이 선호하는 근거리 여행지로 전체적인 여행수요 감소에도 가장 높은 성장률.

동남아 -0.7%, 베트남이 성장 주도. **남태평양 -2.3%**, 남태평양 내 비행거리가 가장 짧은 괌이 성장 주도.

유럽 -22.6%, **미주 -24.1%**, 장거리 여행지는 단거리에 비해 예약시점이 길기 때문에 당월 예약의 여지가 적어 상대적으로 여행수요 감소 영향 더 받음.

중국 -36.0%, 전년 2월의 높은 성장률 (25.7% YoY)에 의한 높은 기저(High Base)와 여행수요 감소의 영향.

인원 비중



예약률 증감 (PKG)

(단위 : %)

	18년 3월	18년 4월	18년 5월
증감률	15.2	11.7	2.5

* 2018.02.28 기준 국내 포함 모객 현황 / 전년 동일 기준시점까지의 누적 모객 비교 (Month to date)

2018년 2월 한달동안 평창 동계올림픽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면서 해외여행 예약 시점이 뒤로 밀림.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은 자국에서 열린 메가 스포츠이벤트로 타국에서 개최된 이벤트 보다 관심도가 높았음. 이 때문에 여행수요가 이연되었으나 2월 평창 올림픽 폐막 직후부터 3~6월 예약 문의 빠르게 증가.

18년 3월, 4월 5월은 전년 3월, 4월, 5월의 동일시점 예약률이 각각 45%, 53%, 68%로 매우 높은 기저인 상황. 여행 출발 시점이 가장 가까운 3월부터 여행 수요 유입. 이연수요가 유입되면서 예약률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 성장 주도 지역은 1월과 유사한 유럽, 미주, 일본, 동남아.